

편집증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의사소통*

이 훈 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의 애착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560명에게 편집 척도, 애착유형 척도, 성인애착척도, 가족체계 유형질문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질문지, 자기개념 질문지를 실시한 후 편집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을 선발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두려움과 몰입 유형의 성인기 애착 유형을 많이 나타냈고, 안정 애착 유형은 적었다. 애착 관계의 질 측면에서도 비편집 집단보다 애착-의존 및 애착-친밀 수준은 낮고, 애착-불안 수준은 높았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에서도 비편집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더 높았다. 연구 2에서는 피해망상 환자집단 20명, 정신과 통제집단 20명, 정상인 통제집단 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몰입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이 많았고, 애착-불안 수준이 정신과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고, 애착-친밀 수준은 낮았다.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도 정신과 통제 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편집증, 애착 유형,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 의사소통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1-C00539).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훈 진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151-746 /
FAX : 02-880-6428 / E-mail : hjlee83@snu.ac.kr

편집증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크게 자각과 추리과정, 자기 개념과 자존감, 귀인과 사회적 추론 및 사회인지, 분노표현양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각과 추리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편집증이 비정상적 자각이나 추리과정의 산물이라는 가설을 검증했는데, 중성 자극을 사용한 단순 추리과제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Dudley, John, Young, & Over, 1997; Huq, Garety, & Hemsley, 1989; Young & Bentall, 1995), 편집증 집단이 위협 자극에 대해 주의 및 기억편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Bentall & Kaney, 1989;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Wofenden, Dewey, & Bentall, 1991).

자기개념 및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 부정적 타인 개념의 산물이고,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에 대한 강한 방어 동기와 관련됨을 시사하고 있으며(원호택, 이훈진, 1997; 이훈진, 2000c; 이훈진, 원호택, 1997, 1998;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Hingley, 1992; Kinderman,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Zigler & Glick, 1988), 이와 관련해 자기개념 괴리와 인과 귀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Bentall et al, 1994; Kinderman & Bentall, 2000).

편집증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위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귀인 이론은 편집증 및 망상의 인지적 편향에 대해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편집증이 부정적 자기개념과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의 결과라는 가설 하에 편집증 집단의 방어적 귀인을 검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많은 연구들이 이를 입증하였다(원호택, 이훈진, 1997; 이명원, 1999; 이훈진, 1999, 2000a; 이훈진, 원호택, 1998;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andido & Romley, 1990; Kinderman & Bentall, 1997, 2000). 또한 편집증 집단은 방어적 귀인 방

향과 상반되는 맥락정보와 귀인정보가 제시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방어적 귀인을 나타냈다(이훈진, 2000a). 최근엔 사회인지의 맥락에서 자기 및 타인 개념, 자의식, 사회불안, 자기 검색 등의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Bentall, 2001; Bentall & Kinderman, 1999; Martin & Penn, 2001).

편집증과 분노표현양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편집증이 높은 반응성 특성분노, 높은 분노 억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훈진, 2000b), 전통적으로 우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역기능적 태도가 편집증의 경우에도 핵심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훈진, 1998).

선행 연구들은 편집증이 병적 현상이 아닌 연속선상의 심리 현상임을 입증함으로써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와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편집증과 망상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효과 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훈진, 2000d; Alford & Beck, 1994; Bentall, 1996; Bentall, Haddock, & Slade, 1994; Chadwick, Birchwood, & Trower, 1996; Chadwick & Lowe, 1994; Chadwick, Lowe, Horne, & Higson, 1994; Chadwick & Trower, 1996).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편집증의 개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었고, 편집증의 발달, 경과,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과 사회·문화적 측면은 다루지 않았다. Brockington(1991), Butler와 Braff(1991), 그리고 Fenigstein(1994)의 주장에서도 시사되듯이 편집증의 형성과 유지에는 가족 분위기와 발달적 배경, 사회·문화적 요인도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편집증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족 변인들과 사회·문화적 변인들을 종합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변인들 중 하

나가 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포함한 가족 관계 변인이다. 특히 애착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로부터 발달해 성인기 대인관계와 정신병리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Ainsworth, 1989; Freeney & Noller, 1990; Harzan & Shaver, 1987; Morris, 1982; Sable, 2000; Sternberg & Barnes, 1985), 편집증 이해에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편집증 집단의 애착 유형, 애착관계의 질을 알아봄으로써 편집증의 발달, 유지에 관여하는 애착 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관계와 기능의 측면에서는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 간 의사소통 유형 등이 편집증 이해에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은 Bowlby(1969)가 영아-양육자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모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영아-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어머니 외의 어떤 사람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적 유대로 인식되며(장휘숙, 1997),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통합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uiter, 1994). 최근 애착의 연속성을 근거로 성인기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4; Pietromonaco & Barret, 1997), 성인 정신병리 및 성격특질과의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다(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Sable, 2000).

Bowlby(1969)에 따르면 아동은 양육자가 보살핌을 주고 반응적인지 그리고 자신은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형(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애착은 아동의 자기개념과 사회적 세상에 대한 관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미래의 상호작용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다(Pietromonaco & Barrett, 1997). 또한 이러한 작동모형의 내재화

는 자기 및 대인관계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Harmmen, Burge, Daley, & Davila, 1995), 성인기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귀인 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2001)은 애착유형에 따라 귀인양식,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소재가 다를 것을 보고하였다.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귀인양식이 편집증의 핵심 개념이라는 점에서 초기 및 성인기 애착유형은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증과 애착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애착 유형 및 애착 관계의 질과 편집증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에 의해 구분된 네 가지 성인애착 유형과 Hazan과 Shaver(1987)가 기술한 세 가지 애착관계의 질 측면에서 편집증과의 관계를 알아보려 한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연구는 초기 애착유형에서 출발해 종단적인 발달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나, 애착의 연속성을 고려해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집단의 성인기 애착유형과 애착관계의 질을 알아보는 것도 애착과 편집증의 관계를 알아보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애착과 더불어 편집증의 가족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변인이 가족 기능 유형과 가족 간 의사소통이다.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간에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많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 등 가족 기능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oldstein(1985, 1990)도 아동기의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가 성인기의 정신분열증, 편집성 성격장애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집단의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도 알아볼 것이다.

연구 1.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 연구

방 법

피험자

대학생 560명(남 211, 여 349)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0.35세였다. 이 중 편집 척도($M = 23.41$, $SD = 10.20$) 점수가 상위 1 표준편차 이상(34점 이상)인 경우 편집성향 집단으로, 하위 1 표준편차 이하(13점 이하)인 경우 비편집 집단으로 선발하였다. 그 결과 편집성향 집단 88명(남 34, 여 54), 비편집 집단 91명(남 37, 여 54)이 선발되었으며, 두 집단의 성비 차는 없었다, $\chi^2(1) = 0.05$, ns .

도구

편집척도: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제작한 척도로 피해의식을 중심으로 편집증적 경향을 측정한다.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에 따르면,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88~.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이었다.

자기보고형 애착유형척도 (Self-report Attachment Style: SAS):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제작한 애착 4범주 척도로, 김은정과 권정혜(1998)가 번안하였다.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네 가지 항목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항목 각각을 7점 척도

로 평정한 후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여 각 유형별 점수도 산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무시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으로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다. '몰입형'은 친밀한 대인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자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두려움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Collins와 Read(1990)가 Hazan과 Shaver(1987)의 이론에 근거해 개발한 검사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친밀, 애착-불안, 애착-의존의 3가지 차원에서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한다. 애착-의존 척도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가용하고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애착-불안 척도는 내가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정도를, 애착-친밀 척도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체계유형 질문지: Olson과 Portner 및 Lavee(1985, 한상분, 1992에서 재인용)가 제작한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한다. 가족 응집성 척도에는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하게 느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고,

가족 적응성에는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등 가족의 융통성과 적응력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상분(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α)는 .90이었다.

측정하고, 각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5문항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는 .92,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되었다.

결 과

가족의사소통 질문지: Barnes와 Olson(1982, 민혜영, 1990에서 재인용)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 각각에 대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두 차원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내적 합치도 α 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문항이 .86, 어머니의 경우는 .85로 보고되었다.

변인간 상관

성인 애착 유형을 제외한 변인들 간의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편집증은 애착-불안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r = .36, p < .001$, 애착-의존 및 애착 친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r = -.43, p < .001$; $r = -.46, p < .001$,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사람들을 의존 대상으로서 믿지 못하는 경향과 관련되었다. 또한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r = -.29, p <$

표 1. 편집척도, 애착 척도, 가족체계유형, 가족의사소통 질문지 점수들의 상관

측정치	PS	DATT	IATT	AATT	FMCO	FMAD	FOC	FDIS	MOC	MDIS	SCS
PS		-.43***	-.46***	.36***	-.29***	-.23***	-.23***	.33***	-.23***	.38***	-.41***
DATT			.31***	-.34***	.21***	.20***	.21***	-.26***	.11*	-.22***	.32***
IATT				-.33***	.21***	.18***	.19***	-.26***	.21***	-.34***	.48***
AATT					-.25***	-.27***	-.22***	.20***	-.23***	.22***	-.54***
FMCO						.76***	.60***	-.35***	.59***	-.33***	.42***
FMAD							.64***	-.37***	.49***	-.26***	.39***
FOC								-.60***	.31***	-.20***	.29***
FDIS									-.12**	.37***	-.26***
MOC										-.49***	.41***
MDIS											-.34***

주. 분석과정에서 무응답 사례가 제외되어 변인별로 사례수가 524~557명으로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PS = 편집 척도; DATT = 애착-의존; IATT = 애착 친밀; AATT = 애착 불안; FMCO = 가족응집성; FMAD = 가족적응성; FOC =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FDIS =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MOC =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MDIS =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SCS = 자기개념척도

.001; $r = -.23, p < .001$,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3, p < .001$; $r = .38, p < .001$. 편집증의 핵심 변인 중 하나인 자기개념의 경우 애착 의존 및 애착 친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r = .32, p < .001$; $r = .48, p < .001$, 애착 불안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r = -.54, p < .001$, 편집 척도와는 반대 방향의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기개념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을 의존 대상으로서 신뢰하는 경향도 높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을 편안하게 느꼈다.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비교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에서 보고된 성인기 애착유형의 분포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편집성향 집단은 몰입형 애착(37%과 두려움형 애착(28%)이 많은 반면 비편집 집단은 안정형 애착(64%)이 절대 다수이고 두려움형 애착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은 애착유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네 가지 애착 유형 각각을 7점 척도로 평정한 보충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에서도 편집 점수는 안정 애착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r = -.26, p < .001$, 무시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

형 애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16, p < .001$; $r = .30, p < .001$; $r = .36, p < .001$.

각 유형별로 7점 척도로 평정한 애착 유형별 점수와 애착관계의 질,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의 집단 차를 알아보기 위해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을 대상으로 t-검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을 보면, 편집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무시, 몰입, 두려움 애착 수준이 높았고, $t(176) = 3.28, p < .001$; $t(177) = 4.75, p < .001$; $t(176) = 7.17, p < .001$, 안정 애착 수준은 낮았다 $t(176) = -4.28, p < .001$. 애착 관계의 질 측정치에서도 편집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애착-불안 수준이 높았고, $t(176) = 7.39, p < .001$, 애착-의존 및 애착-친밀 수준은 낮았다, $t(176) = -8.61, p < .001$; $t(177) = -9.49, p < .001$.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도 비편집 집단보다 낮았고, $t(168) = -6.10, p < .001$; $t(170) = -4.34, p < .001$,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고, $t(167) = -5.95, p < .001$,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더 높았다, $t(170) = 8.41, p < .001$.

논 의

대학생 집단 연구 결과, 편집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에 비해 두려움과 몰입 유형의 성인기 애착 유형을 많이 나타냈고, 안정 애착 유형은 적었다. 애착 관계의 질 측면에서도 편집 성향 집단은 비편집 집단보다 애착-의존 및 애착-친밀 수준은 낮고, 애착-불안 수준은 높았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에서도 비편집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더 높았다.

이 결과는 편집성향이 불안정한 애착 유형과

표 2.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애착유형별 분포

	안정형 애착	무시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편집성향 집단	18 (23)*	9 (12)	29 (37)	22 (28)
비편집 집단	55 (64)	12 (14)	19 (22)	0 (00)

* 괄호 안은 비율 (%)

$\chi^2(4) = 44.05, p < .001$.

표 3. 편집성향 집단과 비편집 집단의 애착 유형, 애착관계의 질, 가족응집성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편집성향 집단 (n=88)		비편집 집단 (n=91)		t 값
	M	SD	M	SD	
편집 척도	39.11 (5.81)		8.58 (3.97)		41.21 ***
안정 애착	3.72 (1.59)		4.69 (1.44)		-4.28 ***
무시 애착	3.53 (1.74)		2.77 (1.35)		3.28 ***
몰입 애착	4.26 (1.76)		3.07 (1.60)		4.75 ***
두려움 애착	3.64 (1.86)		1.86 (1.32)		7.17 ***
애착-의존	16.52 (2.79)		19.86 (2.37)		-8.61 ***
애착-친밀	16.99 (3.23)		21.46 (3.08)		-9.49 ***
애착-불안	17.43 (3.51)		14.03 (2.55)		7.39 ***
가족 응집성	30.73 (6.08)		35.91 (4.92)		-6.10 ***
가족 적응성	29.58 (6.14)		33.40 (5.36)		-4.34 ***
개방적 의사소통	63.30 (12.81)		74.21 (11.00)		-5.95 ***
아버지	28.21 (8.38)		34.01 (7.25)		-4.89 ***
어머니	34.93 (0.68)		40.24 (6.18)		-4.75 ***
역기능적 의사소통	56.06 (8.37)		45.17 (8.60)		8.41 ***
아버지	29.01 (6.07)		23.84 (5.47)		5.91 ***
어머니	27.17 (5.38)		21.45 (4.80)		7.41 ***
자기개념 척도	101.48 (13.32)		116.57 (14.16)		-7.19 ***

*** $p < .001$

관련됨을 시사하며, 특히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상대방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한 몰입형과 자기와 타인 모두에 부정적이고 타인으로부터 받을 상처가 두려워 친밀한 관계 형성 자체를 회피하는 두려움형 애착이 편집성향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성인기 애착 관계를 의존, 친밀, 불안 세 측면으로 구분한 애착관계의 질에서도 편집성향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믿음은 적게 느끼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나타냈다. 따라서 애착의 연속성을 주장한 Bolby(1969)와 많은 연구자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Freney & Noller, 1990; Harzan & Shaver, 1987; Morris, 1982; Sable, 2000; Sternberg & Barnes, 1985)의 입장에서 볼 때, 두려움과 불안 애착 유형이 편집증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편집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이들 변인들이 애착 유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변인 역시 편집증 이해에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발달적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또한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에 국한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김지영(2002)의 연구에서 학대 방치 과잉간섭 등의 부모양육 행동이 부모 표상, 현재의 자기 및 타인 표상을 거쳐 편집성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시사되었으나, 이 연구는 애착 유형을 직접 알아보지 않았고 역시 횡단적인 자기보고 연구였다. 또한 청년기의 애착 수준과 자율성이 대인민

감성 및 적대감과 관련된다는 장휘숙(2002)의 보고도 있으나, 이 연구 역시 횡단적 연구였고 편집증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애착 유형과 편집증 간의 발달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망상 환자집단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종단적인 연구는 장기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우선 환자집단에의 일반화 연구를 먼저 수행하였다.

연구 2. 피해망상 환자 집단 연구: 대학생 집단 연구의 일반화

방 법

피험자

피해망상을 주 증상으로 보이는 환자 20명과 정신과 통제집단 20명, 그리고 이 두 환자 집단과 연령, 성별, 학력을 일치시킨 정상인 통제집단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환자는 서울 소재의 3개 대학병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세 집단 모두 남자 8명 여자 12명이었으며, 고졸이 9명, 대졸 또는 대재 이상이 11명씩이었다. 연령은 16세에서 41세까지 걸쳐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7.92세였다. 진단별로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정신분열증 망상형이 12명, 망상장애가 8명, 정신과 통제 집단은 주요 우울장애 2명,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 15명, 불안장애 또는 신체화 장애 3명이었다.

환자 집단은 주의치 또는 담당 치료 팀의 평정면접지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선발했는데, 현재 환각이 두드러지거나 피해망상 이외의 복합적 망상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였고, 우울 집단의 경우 기

분과 일치되는 망상을 보이는 경우는 포함되었으나, 피해망상이 동반된 경우는 제외되었다. 또한 부모가 일찍 사망했거나 장기간 접촉 없이 지내 부모에 관한 문항에 답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정상인 통제 집단은 정신과적 문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적응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우울 척도와 편집 척도를 실시해 평균 이하인 사람을 선발하였다. 평균은 우울 척도(한국판 Zung 우울척도)의 경우 이영호와 송중용(1991)의 연구에 보고된 38점을 기준으로 하였고 편집 척도는 이훈진(2000a, c)에 근거해 24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구

한국판 Zung 우울척도(한국판 SDS):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반분신뢰도 .73~.74, 내적 합치도(α) .79~.80이었다.

그 외의 질문지는 대학생 집단 연구와 같았다.

결 과

집단 별 애착 유형의 분포

피해망상 집단과 정신과 통제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의 성인기 애착유형의 분포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몰입형 애착(45%)과 두려움형 애착(35%)이 많은 반면, 정신과 통제집단은 안정형 애착(35%), 몰입형 애착(25%), 두려움형 애착(25%)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정상인 통제집단은 안정형 애착(80%)이 절

표 4. 피해망상 집단과 정신과 통제집단, 정상인 통제 집단의 애착유형별 분포

	안정형 애착	무시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
피해망상 집단	1 (5)*	3 (15)	9 (45)	7 (35)
정신과 통제집단	7 (35)	3 (15)	5 (25)	5 (25)
정상인 통제집단	16 (80)	2 (10)	2 (10)	0 (00)

* 괄호 안은 비율(%)

$\chi^2(6) = 25.63, p < .001.$

대 다수이고 두려움형 애착은 전혀 없었다.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정상인 통제 집단에 비해 몰입형 및 두려움형 애착이 많고, 안정형 애착은 적었다. $\chi^2(3) = 24.89, p < .001.$ 정신과 통제집단과 정상인 통제집단간의 차이도 유의미했다, $\chi^2(3) = 10.01, p < .05.$ 그러나 피해망상 집단과 정신과 통제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3) = 5.98, ns.$

표 5. 피해망상 집단과 통제집단의 애착 유형, 애착관계의 질, 가족응집성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피해망상 집단 (n=20)		정신과 통제집단 (n=20)		정상인 통제집단 (n=20)		F값
	M	SD	M	SD	M	SD	
편집 척도	32.84 (13.42) _a		17.75 (8.56) _b		14.15 (4.08) _b		21.87***
안정 애착	4.05 (1.68)		4.19 (1.80)		4.70 (1.12)		.95
무시 애착	3.05 (2.01)		3.31 (2.15)		2.95 (1.32)		.18
몰입 애착	4.63 (1.64) _a		3.50 (1.75) _{ab}		2.90 (1.07) _b		6.69**
두려움 애착	4.10 (1.97) _a		3.38 (1.89) _a		1.50 (0.61) _b		14.06***
애착-의존	18.20 (3.05)		17.90 (3.37)		19.80 (1.79)		2.62
애착-친밀	16.69 (3.21) _a		20.75 (3.81) _b		23.05 (2.04) _b		21.45***
애착-불안	18.35 (2.92) _a		15.70 (3.16) _b		14.65 (2.10) _b		9.48***
가족 응집성	33.61 (6.87)		33.10 (6.53)		35.61 (6.4)		.81
가족 적응성	29.06 (6.86)		31.20 (5.79)		32.90 (5.91)		1.93
개방적 의사소통	61.66 (11.74) _a		64.72 (11.51) _{ab}		70.90 (11.28) _b		3.34*
아버지	28.96 (5.83)		29.33 (6.76)		31.35 (6.84)		.79
어머니	32.70 (8.58) _a		35.40 (7.08) _{ab}		39.55 (6.19) _b		4.41*
역기능적 의사소통	62.97 (8.67) _a		50.83 (7.99) _b		45.30 (6.84) _b		26.35***
아버지	32.02 (4.03) _a		26.93 (3.96) _b		24.40 (4.36) _b		17.74***
어머니	30.95 (5.91) _a		23.90 (5.43) _b		20.90 (3.58) _b		20.69***
자기개념 척도	95.48 (14.69) _a		102.35 (15.24) _a		118.60 (7.40) _b		16.82***

* $p < .05.$ ** $p < .01.$ *** $p < .001$

아래 첨자는 Scheffé 검증에 의한 집단 차를 나타냄.

공유하는 철자가 없는 집단 간에는 $p < .05$ 수준 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임.

각 유형별로 7점 척도로 평정한 애착 유형별 점수와 애착관계의 질,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서의 집단 차를 알아보기 위해 피해망상 집단과 정신과 통제집단, 정상인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를 보면, 피해망상 집단은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몰입 및 두려움 애착 수준이 높았고, 애착관계의 질 측면에서도 애착불안 수준이 정신과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고, 애착-친밀 수준은 낮았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 역시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낮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정신과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자기개념 수준도 정상인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정신과 통제집단의 경우, 두려움 애착 수준이 정상인 통제 집단보다 높았고, 자기개념 수준은 정상인 통제 집단보다 낮았다.

논 의

환자 및 정상인 통제 집단 연구 결과, 피해망상 집단은 몰입형 애착과 두려움형 애착이 많은 반면, 정신과 통제집단은 안정형 애착, 몰입형 애착, 두려움형 애착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정상인 통제집단은 안정형 애착이 절대 다수이고 두려움형 애착은 전혀 없었다. 애착관계의 질 측면에서도 피해망상 집단은 애착-불안 수준이 정신과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고, 애착-친밀 수준은 낮았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 역시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낮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정신과 통제 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정신과 통제집단의 경우, 두려움 애착 수준이 정상인 통제집단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두려움형 애착은 피해망상과 우

울 및 불안 등의 정신병리와 광범위하게 관련되며, 높은 애착-불안과 낮은 애착-친밀 수준, 역기능적 가족 의사소통은 피해망상의 독특한 특성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환자집단 연구에서도 성인기 애착 유형이 성인 정신병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두려움형 애착에서 핵심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 집단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피해망상이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는 애착 유형과 관련됨을 시사하며, 이러한 자기 및 타인개념은 이훈진과 원호택(1998), 김지영(2002)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 집단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피해망상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믿음은 가장 적게 느끼고,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많이 나타냈다. 피해망상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관련성은 초기의 의사소통 장애가 정신분열증 및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다는 Goldstein(1985, 199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2도 횡단 연구로서 발달적인 변화나 인과론적 설명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의사소통 모두 자기보고된 자료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 집단에서와 달리 애착 의존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에서 집단 차이가 없었는데, 이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체 논의에서 하고자 한다.

전체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집단의 성인기 애착유형과 애착관계의 질,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가족의사소통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집단은 두려움형 애착과 몰입형 애착유형을 많이 나타냈고, 피해망상 집단의 경우 안정형 애착 유형이 전혀 없었다. 애착관계의 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한 결과에서도 애착-불안 수준은 가장 높고, 애착-친밀 수준은 가장 낮았다. 또한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편집증 집단의 독특한 특성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의 경우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역시 비편집 집단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편집증이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 해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는 애착 유형과 관련됨을 시사하며, 이러한 자기 및 타인개념은 이훈진과 원호택(1998), 김지영(2002)의 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또한 몰입형 애착 유형도 많았는데, 이는 대인관계 형성을 원하면서도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상대방의 평가와 인정에 과민해서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편집증과 관련되는 이러한 두 가지 애착 유형은 Chadwick 등(1996)이 구분한 편집증의 두 하위유형, 즉 “피해 편집증”과 “처벌 편집증”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애착-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사랑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애착-친밀 수준이 낮은 것은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두 편집증의 핵심 특성인 불신과 의심의 밑바탕이 되는 애착 유형들이며, Millon과 Davis(1996)가 소개한 편집증의 “애착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편집증이 애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했으며, 애착과 정신병리의 관계 및 애착의 연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장휘숙, 1997; Ainsworth, 1989; Bolby, 1969; Freeney & Noller,

1990; Harzan & Shaver, 1987; Morris, 1982; Sable, 2000; Sternberg & Barnes, 1985)의 가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족의사소통유형의 경우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보다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편집증과 더 관련이 있었으며, 정신과 통제집단 및 정상인 통제집단과 구별되는 핵심 특성이었다. 이는 가족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편집증 발달에 기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훈진과 이명원(2000), Brockington(1991), Butler와 Braff(1991), Fenigstein(1994), 그리고 Goldsten(1985, 1990)이 강조한 편집증의 가족적 요인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결과이다.

일부 변인에서는 대학생 편집성향 집단과 피해망상 환자 집단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피해망상 환자집단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 연구 결과와 달리 애착-의존과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적응성에서 집단 차이가 없었다. 이 차이는 대학생 집단과 환자 및 정상인 통제 집단의 연령과 결혼 상태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변인들에 대한 부가적 분석 결과 대학생 및 환자, 정상인 통제집단 자료 모두에서 연령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결혼 상태의 주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결혼 상태는 두려움 애착 유형과 애착-친밀 및 애착-불안 수준에 영향을 미쳐,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두려움 애착 유형이 적고(6% vs 30%), 애착-불안 수준이 낮고 애착-친밀 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두 환자 집단과 정상인 통제 집단 간에 결혼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가 연구 2의 집단 비교 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과 환자집단에서 나타난 이들 변인에서의 차이는 연령과 결혼 상태보다는 대학생과 치료중인 환자라는 상황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들의 경우 자기보고식 질문지 사용

에 따른 주관적 왜곡 가능성과 치료관계에 따른 치료자와 애착-의존 관계 형성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는 애착유형과 가족 의사소통 유형이 편집증의 핵심 변인이며, 편집증의 이해와 치료에서 이러한 발달적, 가족적 변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애착 이론을 활용한 이러한 치료적 접근은 광장공포증이나 경계선 성격장애, 상실이나 슬픔 등의 문제 영역에서 이미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Sable, 2000).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본 연구가 횡단 연구여서 아동기 애착유형과 아동기의 가족분위기가 성인기 편집증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애착과 가족의사소통 유형을 편집증 연구에 도입하여 그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는 부족했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등 횡단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일부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아 애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와 성인기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편집증 집단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김지영(2002)의 연구에서 다루긴 했으나 애착 유형과의 관계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애착 유형과 부모양육태도, 편집증 및 우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환자 집단 연구에서 장애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아 망상이나 장애의 경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본 연구의 경우 현재 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로 표집을 제한했기 때문에 경과에 따른 차이를 어느정도 배제할 수 있으나, 경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

요가 있다. 네 번째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을 총점과 평균으로만 비교해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물론 본 연구의 초점이 애착 유형과 전반적인 가족 적응 수준, 가족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의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으나 편집증과 관련해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애착 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의사소통 유형의 측정이 모두 자기보고 식으로 이루어져 왜곡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환자 자신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임상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긴 하나 환자 자신이 아닌 다른 가족이나 제3자의 지각을 측정해 환자의 자기보고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인과적 관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4.
- 김지영 (2002). 편집성 성격성향자의 자기·타인 표상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의 관계.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원호택, 이훈진 (1997). 편집성향 집단의 자기개념과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73-182.
- 이명원 (1999). 자기개념의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미발표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미발표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훈진 (1998). 역기능적 태도, 생활사건, 자동적 사고와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89-103.
- 이훈진 (1999). 편집증의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기개념과 추론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15.
- 이훈진 (2000a). 편집 집단과 우울 집단의 사회적 추론: 맥락정보 사용과 귀인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39-451.
- 이훈진 (2000b).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 이훈진 (2000c). 편집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주의 및 기억편향. *심리과학*, 9(1), 77-99.
- 이훈진 (2000d). 정신병적 장애 원호택 외 공저. *심리장애의 인지행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7). 편집증에 대한 인지-동기적 접근: 개관. *심리학의 연구문제*, 4, 323-364.
- 이훈진, 원호택 (1998). 편집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 및 귀인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05-125.
- 이훈진, 이명원 (2000). 편집성 성격장애: 열등감과 불신의 그림자. 서울: 학지사.
- 장휘숙 (1997).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최근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 '97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439-454.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Barnes, H., & Olse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ntall, R. P. (1996). From cognitive studies of psychosis to cognitive behaviour therapy for psychotic symptoms. In G. Haddock & P. D. Slade (Ed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with psychotic disorders*. London: Routledge.
- Bentall, R. P. (2001). Social cognition and delusional beliefs. In P. W. Corrigan & D. L. Penn (Eds.), *Social cognition and schizophrenia*. Washington D. C.: APA.

- Bentall, R. P., Haddock, G., & Slade, P. D. (1994).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persistent auditory hallucinations: From theory to therapy. *Behavior Therapy, 25*, 31-66.
- Bentall, R. P., & Kaney, S. (1989). Content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ecutory delusions: An investigation using the emotional Stroop tes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355-364.
- Bentall, R. P., & Kinderman, P. (1999). Self-regulation, affect and psychosis: The role of social cognition in paranoia and mania. In T. Dalgleich & M.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ckington, I. (1991). Factors involved in delusion 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suppl. 14), 42-45.
- Butler, R. W., & Braff, D. L. (1991). Delusions: A review and integration. *Schizophrenia Bulletin, 17*, 633-647.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arnell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hadwick, P., Birchwood, M.,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voices and paranoia*.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4). A cognitive approach to measuring and modifying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55-367.
- Chadwick, P. D. J., Lowe, C. F., Horne, P. J., & Higson, P. J. (1994). Modifying delusions: The role of empirical testing. *Behavior Therapy, 25*, 35-49.
- Chadwick, P. D. J., & Trower, P. (1996). Cognitive therapy for punishment paranoia: A single case experi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51-35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udley, R. E. J., John, C. H., Young, A. W., & Over, D. E. (1997). Normal and abnormal reasoning in people with delus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 243-258.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r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nigstein, A. (1994). Paranoia. In V. S. Ramachandran (Eds.),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 3). San Diego: Academic Press.
- Goldstein, M. J. (1985). Family factors that antedate the onset and course of schizophrenia and

- related disorders: The results of a fifteen year prospective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71, 7-18.
- Goldstein, M. J. (1990). Family relations as risk factors for the onset and course of schizophrenia.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J.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men, C. L., Burge, D., Daley, S. E., & Davila, J.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s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r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gley, S. M. (1992). Psychological theories of delusional thinking: In search of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5, 347-356.
- Huq, S. F., Garety, P. A., & Hemsley, D. R. (1988). Probabilistic judgements in deluded and non-deluded subj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04, 801-812.
- Kaney, S., Wolfenden, M., Dewey, M. E.,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ening propos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5-87.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7).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Kinderman, P., & Bentall, R. P. (2000). Self-discrepancies and causal attributions: Studies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55-273.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artin, J. A., & Penn, D. L. (2001). Social cognition and subclinical paranoid ideat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61-265.
- Millon, T., & Davis, R. D. (1996).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V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 Spns.
- Morris, D. (1982). Attachment and intimacy. In M. Fisher & G. Stricker (Eds.), *Intimacy*. New York: Plenum Press.
- Olson, D. H., Portner, H.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1997).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Ruiter, C. (1994). Anxious attachment in agoraphobia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 literature review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C. Perris, W. A. Arrindell, & M. Eisenmann (Eds.),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Chichester: Wiley.
- Sable, P. (2000). *Attachment and adult psychopathology*.

- Northvale: Jason Aronson Inc.
- Sternberg, R. J., & Barnes, M. (1985). Real and ideal others in romantic relationships: Is four a crow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589-1596.
- Young, H. F., & Bentall, R. P. (1995). Hypothesis testing in patients with persecutory delusions: Comparison with depressed and normal subjec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353-369.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 원고접수일 : 2002. 9. 26.
게재확정일 : 2002. 10. 30.

K C I

Attachment Style, Family Cohesiveness, and Family Communication in Paranoia

Hoon-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achment style, the family cohesiveness, and the mode of family communication in paranoia. In study 1, the Paranoia Scale, the Self-report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the Adult Attachment Scale,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the Self-concept Scale were administered to 560 college students, and the paranoid and non-paranoid student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cores of the Paranoia Scale. The paranoid students showed more fearful and preoccupied attachment style and less secure attachment style than non-paranoid students. And they showed more anxiety and less dependency and intimacy than non-paranoids. I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the paranoid students showed low adaptability and cohesion than non-paranoids. And they showed more dysfunctional family communication than non-paranoids. In Study 2,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0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20 psychiatric controls, and 20 normal controls. The persecutory deluded patients showed more preoccupied and fearful attachment styles than control groups. And they showed more anxiety and less intimacy in attachment. And also, they showed more dysfunctional family communication than control groups.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attachment styl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family communication, paranoia.